

이탈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목회 리빌딩 사역:

Y 교회 사역 사례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메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최신호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Shinho Choi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RENEWING MINISTRY IN RESPONSE TO YOUNG ADULT

DISENGAGEMENT:

A CASE STUDY OF Y CHURCH

Shinho Choi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nsifying phenomenon of youth disengagement from the Korean church not as a mere generational conflict or a byproduct of socio-cultural shifts, but as a fundamental ‘ontological crisis’ facing the ecclesial community. To this end, this research adopts the ontological theology presented in Paul Tillich’s *Love, Power, and Justice* as its core theoretical framework. By integrating a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church with Thom S. Rainer’s empirical research on church decline and revitalization, this study proposes a theological model for rebuilding the next generation.

Adopt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this research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Y Church’, which is currently experiencing a decline in its youth communi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risis of the church originates from a structural contradiction where ‘Love, Power, and Justice’—the essential pillars of the community—function only mechanically and in isolation.

According to Tillich's ontological insights, 'Love' is the dynamic principle that reunites what is separated, 'Power' is the possibility of self-affirmation that overcomes the threat of non-being to sustain existence, and 'Justice' is the internal form and order that ensures love and power are realized without distortion in reality. In the case of Y Church, the separation of these three principles led directly to the loss of the community's ontological significanc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ynthesizes biblical values, Tillich's theology, and Rainer's pastoral alternatives to propose three rebuilding strategies: first, 'recovering worship-centeredness' aimed at the reunion of separated being; In which, 'restructuring the space of being' where the value of youth's existence can be affirmed; and third, 'establishing a just communal order' that provides the institutional form to prevent love from becoming an empty slogan.

In conclusion, this study asserts that rebuilding the next generation is not an optional task for the future expansion of the church, but a vital theological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the church can continue to exist as a living faith community in the present age.

국문 초록

이탈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목회 리빌딩 사역:

Y 교회 사역 사례 연구

최 신 호

서울, 대한민국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교회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 이탈 현상을 단순한 세대 간 갈등이나 외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환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근본적인 ‘존재론적 위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저서 『사랑, 힘 그리고 정의』에 나타난 존재론적 신학을 핵심 이론적 기틀로 삼는다. 여기에 성경적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톰 레이너(Thom S. Rainer)의 교회 쇠퇴 및 소생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합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 청년 리빌딩을 위한 구체적인 신학적·목회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질적 사례 연구를 채택하여, 실제 청년층의 이탈과 공동체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Y 교회’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회의 위기는 흔히 지적되는 프로그램의 부재나 리더십 기술의 부족이라는 표면적 이유 이전에,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사랑·힘·정의’의 요소가 유기적

통합을 잃고 파편화된 채 기능적으로만 작동하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틸리히의 존재론적 통찰에 따르면, ‘사랑’은 분리된 존재들을 다시 결합하게 하는 역동적 원리이며, ‘힘’은 비존재의 위협을 극복하고 존재를 지속하게 하는 자기 긍정의 가능성이고, ‘정의’는 이러한 사랑과 힘이 현실 속에서 왜곡되지 않고 실현되도록 돕는 내적인 형태이자 질서이다. ‘Y 교회’의 사례에서 이 세 원리의 분리는 곧 공동체의 존재 의미 상실로 직결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경적 가치, 틸리히의 신학, 그리고 레이너의 목회적 대안을 융합하여 세 가지 리빌딩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분리된 존재들의 재결합을 지향하는 ‘예배 중심의 회복’, 둘째, 청년들의 가치가 긍정될 수 있는 ‘존재의 공간 재구성’, 셋째, 사랑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형식을 갖추는 ‘정의로운 공동체 질서 확립’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 청년 리빌딩은 단순히 교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임을 밝힌다.

목차

감사의 글	xi
그림 목차	x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3
C. 연구 방법 및 연구자의 위치	3
D. 선행연구 검토	4
1. 교회 쇠퇴 및 성장 관련 연구	4
2. 다음세대 및 청년 사역 연구	5
3. 폴 틸리히의 신학 연구	5
E.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6
F. 용어 정리	6
II. 교회 리빌딩과 현대 교회의 특징	7
A. 성경적 리빌딩 사례	7
1. 왕정 시대의 교회	7
2. 초대 교회의 역할	9
B. 폴 틸리히의 신학과 교회 공동체	11
1. 사랑: 분리를 극복하는 존재론적 원리	11
2. 힘: 비존재를 극복하는 존재론적 원리	12
3. 정의: 사랑이 현실화되는 구체적 형식	13

C. 결론: 거룩한 공동체로의 부름과 다음 세대 리빌딩	15
III. Y 교회의 진단과 사례	17
A. 감소의 원인	17
1. 환경적 요인	17
2. 구조적 요인	18
3. 실제 사례	19
B. 소통의 장애	34
1. 트렌드	34
2. 시대적 상황	35
3. 실제 사례	36
C. 세대 간의 갈등	45
IV. 청년 세대 리빌딩 전략	47
A. 예배 중심 리빌딩: 하나님의 임재 회복	47
1. 예배 공동체 세우기 리빌딩	47
2. 실제 사례	49
B. 존재의 공간 리빌딩: 힘의 회복과 공동체 구조 재편	56
1. 섬김 공동체 리빌딩	56
2. 실제 사례	58
C. 정의 중심 리빌딩: 사랑이 지속되는 공동체 질서	66
1. 사랑의 공동체 리빌딩	66
2. 실제 사례	68
V. 다음 세대 청년 리빌딩의 신학적 결론과 목회적 함의	70

A. 신학적 결론	70
B. 목회적 함의	71
C. 연구의 한계와 적용 가능성	72
참고문헌	74

그림 목차

<그림 3-1> 핵심 부원 4 명의 면담 내용	21
<그림 3-2> 동계 수련회 숙소	24
<그림 3-3> 임원회의록	25
<그림 3-4>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5 원칙	29
<그림 3-5> 동계 수련회(워크샵 설문지)	31
<그림 3-6> 워크샵 설문 조사 결과	33
<그림 3-7> QT 계획표	38
<그림 3-8> 비전 트립 타임테이블	44
<그림 4-1> 청년 예배 계획서	52
<그림 4-2> 토요 모임	55
<그림 4-3> 신앙 건강 설문지	60
<그림 4-4> 신앙 건강 결과(일부)	65

감사의 글

가장 먼저,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과정을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막막한 현실과 한계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부어 주셨기에, 오늘의 이 소중한 결실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논문은 저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가 빚어낸 열매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학문의 깊이와 더불어 목회자로서 지녀야 할 시대적 통찰력과 넓은 영적 안목을 열어 주신 김영래 교수님, 조병호 교수님, 그리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마음 깊은 존경의 감사를 전합니다. 교수님들의 학문적 열정과 귀한 가르침을 앞으로 제가 걸어갈 사역의 길에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논문 작성 과정에서 세심한 지도와 격려로 큰 힘을 보태주신 정진욱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제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넉넉한 배려와 사랑으로 지지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광야 같은 학문의 여정 속에서 든든한 동지가 되어준 목회학박사(D.Min.) 과정의 동기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 여정이 외롭지 않았습니니다.

평생을 기도로 쌓아 올리시며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보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기쁨을 돌립니다.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지친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저의 연약함을 묵묵히 감싸 안으며, 때로는 가장 든든한 사역의 파트너로 고된 시간들을 함께 견뎌 준 사랑하는 아내 서정에게 가슴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당신의 인내와 사랑은 이 논문을 완성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한다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 못했음에도 늘 환한 웃음으로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딸 주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장인·장모님 그리고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 없지만 어려울 때마다 간절한 중보 기도로 힘을 실어주신 주신 권사님들과 모든 동료들에게도 마음 다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모든 사랑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논문의 결실이 저 개인의 성취에 머물지 않도록,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최신호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구조적 정체와 더불어 다음세대의 이탈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 세대의 급격한 감소 현상은 단순한 출석률 저하의 문제를 넘어, 교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교회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 교회와 사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12월 시작된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개인의 삶의 방식뿐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와 소통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약 2년에 걸친 강제적인 비대면으로 인한 대면 활동의 제한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적 훈련이 중요한 시기의 청년 세대에게 단절과 고립이라는 경험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인한 강제적 단절은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통 방식은 급속히 확산되었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범세계적인 가치 공유와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다.¹ 이와 같은 변화는 한때 교회의 부흥을 견인했던 사역 모델들이 이제는

¹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6』 (서울: 미래의 창, 2025), 35.

시대적 유효기간이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성공 공식을 고집하는 태도는 젊은 세대와의 정서적 단절을 심화시킬 뿐, 그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고수하기보다, 변화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과 사역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주로 인구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세속화, 디지털 문화의 확산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한정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청년 이탈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쇠퇴와 청년 세대의 이탈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세대 청년 이탈 현상을 외적 환경 변화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접근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실제로 동일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어떤 교회는 청년 세대의 부흥과 사역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점은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외부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교회의 위기가 기능적 실패 이전에 존재론적 위기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목회 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청년들이 단지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속감의 상실, 발언권과 참여의 부재, 공정하지 못한 책임 구조는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생명 공동체가 아닌 소모적 조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여전히 예배와 사역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² Ibid., 38.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교회 쇠퇴를 ‘존재의 상실’이라는 신학적 범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폴 틸리히의 사랑·힘·정의 존재론적 구조를 중심 이론으로 삼고, 다윗의 예배와 초대 교회의 신앙을 통한 성경적 교회 이해와 톰 레이너의 실증적 교회 쇠퇴·소생 연구를 통합하여 다음세대 청년 리빌딩을 위한 신학적·목회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B.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세대 청년 사역의 위기를 단순한 프로그램 실패나 리더십 부족의 문제가 아닌,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신학적 문제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청년 세대를 ‘유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리빌딩 전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교회의 쇠퇴는 어떠한 신학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가? 둘째, 폴 틸리히의 사랑·힘·정의 개념은 다음세대 청년 이탈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셋째, 다윗의 예배와 초대교회의 신앙을 통해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넷째, 톰 레이너의 교회 쇠퇴 및 소생 연구는 목회 현장에서 관찰되는 실제 사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다섯째, 성경·틸리히·레이너를 통합한 리빌딩 모델은 다음세대 청년 회복에 어떠한 신학적·목회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C. 연구 방법 및 연구자의 위치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와 실천 신학적 연구 방법을 결합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Y 교회의 청년 담당 목회자로서, 청년 사역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약 2년간의 관찰과 실천을 병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참여 관찰, 비구조화 면담, 자체 설문 조사, 사역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청년부 핵심 구성원과의 심층 대화를 통해 현장의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의 위험을 인식하고, 신학적 이론과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비판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목회 현장의 실천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다시 현장에 원상태로 되돌리는 실천 신학적 순환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적 특징이 있다.

D. 선행연구 검토

1. 교회 쇠퇴 및 성장 관련 연구

교회 성장과 쇠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적·경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교회 성장 이론은 전략, 리더십, 프로그램, 조직 효율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며 일정한 실천적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교회를 기능적 조직으로 환원하는 경향을 지니며, 교회의 신학적 본질과 존재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톰 레이너는 교회 쇠퇴의 원인을 외적 환경보다 교회 내부의 자기중심성, 사명 상실, 변화 거부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그의 연구는 교회 쇠퇴가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이며

인식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 분석은 주로 현상 기술과 실천적 처방에 머물러 있어,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 해석으로 확장될 여지를 남긴다.

2. 다음세대 및 청년 사역 연구

다음세대 및 청년 사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세대 특성과 문화 코드, 소통 방식 분석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주의와 탈제도화 등을 청년 이탈의 핵심 원인으로 규명하며 관계 중심 사역이나 디지털 등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청년 개별 주체의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정착 교회의 구조적 모순과 존재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 사역은 교회 내부의 주변적 프로그램에 머물게 되었으며, 이는 교회의 본질적 갱신 없이 청년을 기존 체제에 ‘적응’ 시키려는 관성적 시도로 귀결되는 한계를 보여준다.

3. 폴 틸리히의 신학 연구

폴 틸리히의 신학은 존재론적 질문을 신학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교회 위기 분석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특히 그의 저서 『사랑, 힘 그리고 정의』에서 제시된 개념들은 공동체가 존재의 근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분열을 극복하며, 지속 가능한 질서를 형성해 가는지 설명하는 핵심적인 틀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학 연구에서 틸리히의 개념을 구체적인 목회 현장, 특히 청년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틸리히 신학이

추상적인 담론으로 치부되거나,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의 유기적 결합이 간과되어 온 기존 연구 지형과 맥을 같이한다.

E.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회 쇠퇴와 청년 이탈 현상을 단순한 기능적·세대적 차원으로 환원하지 않고, 존재론적 신학의 문제로 재정립한다. 둘째, 폴 틸리히의 사랑·힘·정의 개념을 목회 현장에 투영하여, 다음세대 청년 리빌딩(Rebuilding)을 위한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셋째, 성경적 교회 이해와 톰 레이너의 실증적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결합한 목회 신학적 모델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세대 청년 사역을 개별 부서의 전략적 차원을 넘어, 교회 존재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신학적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목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F. 용어 정리

본 연구에서 청년 세대는 만 19 세부터 39 세 미만의 교회 구성원을 의미하며, 리빌딩은 공동체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 과정을 가리키고, 존재론적 위기는 공동체 정체성이 상실된 상태를 지칭하며, 다음 세대 사역은 통합적 신앙 형성을 지향하는 사역을 의미하고, 공동체성은 상호 책임에 기초한 신앙 관계 구조를 뜻한다.

II. 교회 리빌딩과 현대 교회의 특징

현대 교회의 다음세대 청년 감소 현상은 단순한 참여율 저하, 또는 세대 취향의 변화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는 교회가 무엇을 본질로 삼고 존재해 왔는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하며, 교회 리빌딩은 외형적 확장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자’로 부르셨다.³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위대한 자’로 부르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경은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회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기준을 제공한다.

A. 성경적 리빌딩 사례

1. 왕정 시대의 교회

다윗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사건은 왕정 시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형성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여기에서 “언약궤의 입성이 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발생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³ 톰 레이너,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최예자 역 (서울: 목상하는 사람들, 2022), 49.

⁴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170.

상징하는 중심적인 표상이다. 또한 언약궤의 안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역사 속에서 새롭게 전개될 것을 보여준다.⁵ 이 사건 이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구속사의 중심 무대로 기능하게 되었다.⁶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 봉헌 예식이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어떤 구조와 의미를 갖는가이다. 언약궤 봉헌 예식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며,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적 예식으로 마무리되었다.⁷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며, 하나님은 이에 대해 속죄로 응답하신다. 이는 번제가 인간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보여주며, 예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사건임을 드러낸다.⁸ 이 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화목과 나눔까지 포함한다. 화목제를 드린 것이 예이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화목과 화친을 상징하며, 모든 예배자가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공유하는 백성임을 확인하는 행위였다.⁹

여기에서 돋보이는 것은 예배에 임한 다윗의 모습이였다. 다윗의 예배 태도는 왕정 시대 예배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본질을 잘 드러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내려놓고 언약궤 앞에서 전심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기뻐하며 춤추었고, 이런 자신의 행위가 전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⁵ 한성천 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023: 사무엘하 제 1-10 장』 (서울: 제자원, 2004), 446.

⁶ Ibid., 446.

⁷ Ibid., 446.

⁸ Ibid., 446.

⁹ Ibid., 446.

것임을 사무엘하 6 장 21 절에서 분명히 밝혔다.¹⁰ 이것은 자신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태도였다는 것이다.¹¹ 반면 이의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이다. 미갈의 시각은 사울 가문의 인식을 보여주는데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왕의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보여지는 제사보다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사울의 딸 미갈 또한 언약궤 운반의 신학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다윗의 예배 행위를 무시하고, 경멸하였다.¹³ 왕의 체면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대비는 교회가 외적 권위와 형식을 중시할 때, 영적 생명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자신이 치욕의 자리에 처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신앙적 태도를 보였으며,¹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의 마음은 더욱 낮아져야 함을 보여준다.¹⁵

2. 초대 교회의 역할

초대 교회는 왕정 시대 예배 공동체의 신학적 유산이 계승, 발전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형태로 발전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삶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로 요약하며,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실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¹⁶ 예루살렘

¹⁰ 한성천 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023』, 453.

¹¹ Ibid., 453-454.

¹² Ibid., 451.

¹³ Ibid., 451.

¹⁴ Ibid., 454.

¹⁵ Ibid., 451.

¹⁶ 한성천 외, 『원어성경대전 112: 사도행전 1-7 장』, (서울: 제자원, 2005), 235.

교회의 특징은 바로 성경적 관점과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다.¹⁷ 이러한 요소들은 초대 교회로 하여금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였다.¹⁸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시스템은 혁신적이었다. 어쩌면 요즘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움직임을 초대 교회가 선도한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단순히 유행을 넘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시적 흐름이 아닌 불변하는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특히 교회를 이끈 거룩한 정신의 실체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⁹

특히 초대 교회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로도 나타난다. 신앙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신앙은 결국 가짜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결코 쓸모없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자발적으로 나누어 가난한 지체를 도왔으며, 이는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 정신적·영적 가치를 공유하는 행위였다.²⁰ 이러한 선한 영향력 안에서 그들은 예배와 교제의 공간으로 자신의 처소를 개방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다. 초대 교회는 성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에 힘쓰는 동시에, 여러 성도의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이어갔다.²¹ 이는 공적 예배와 일상적 삶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신앙이 삶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다.²²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결과로 초대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함과 동시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구원과 회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행 2:47).²³ 결국 초대 교회의 정체성은 앞서 이스라엘의 언약궤 봉헌 예식처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¹⁷ 레이너,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45.

¹⁸ 한성천 외, 『원어성경대전 112』, 235.

¹⁹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83.

²⁰ 한성천 외, 『원어성경대전 112』, 237-238.

²¹ Ibid., 239.

²² Ibid., 239.

²³ Ibid., 240.

공동체이며,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과 나눔을 통해 사회 속에서 본이 되는 공동체로 규정된다.²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순기능이다.

B. 폴 틸리히의 신학과 교회 공동체

현대 교회의 다음세대 위기는 단순한 목회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사랑·힘·정의의 근원적 의미를 상실한 존재론적 위기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폴 틸리히는 『사랑, 힘 그리고 정의』에서 존재론을 모든 원리들과 근원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규정하며, 사랑·힘·정의의 의미 역시 존재론적 분석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⁵

1. 사랑: 분리를 극복하는 존재론적 원리

틸리히에게 사랑은 감정적 호의나 윤리적 미덕 이전에,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힘” 이라고 규정한다.²⁶ 이는 사랑이 인간 관계의 기능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운동 원리임을 의미한다. 그는 존재론적 기초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없이 사랑의 윤리적 기능만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²⁷ 다시 말하면, 사랑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기능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랑은 서로를 채워주며, 하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을 존재론적 의미로 이해할 때, 그것은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기초이자, 분리되려는 성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라는

²⁴ 한성천 외, 『원어성경대전 112』, 240.

²⁵ 폴 틸리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 성신형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7), 20, 29.

²⁶ Ibid., 49.

²⁷ Ibid., 109.

표현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비로소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진정한 동력은 감정적 유대나 환대의 문화를 넘어선 곳에 존재한다. 기쁨과 슬픔이라는 상황적 가변성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공존하며 발휘하는 내적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사랑은 단순히 친밀감 같은 감정이 아니라, 분리된 존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힘: 비존재를 극복하는 존재론적 원리

틸리히에게 힘은 지배나 폭력이 아니라 “비존재를 극복하는 가능성”이다. 인간의 힘이란 무한하게 퍼져 있는 비존재에 저항하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²⁸ 여기서 비존재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존재의 의미를 위협하는 우울감, 허무함, 분열 등의 감정들이 비존재를 유도한다. 인간의 삶과 공동체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겉으로 운영되고 유지되어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존재하려는 힘이 없다면, 속이 빈 채로 무너져 내리는 상태인 것이다. 힘은 비존재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 나가려는 에너지와 같다. 이는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근원적인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틸리히는 사랑과 힘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힘의 기본 원칙과 사랑의 기본 원칙이 동일하다고 말하며, 그 공통점은 분리와 재결합이라고 설명한다.²⁹ 사랑이 집을 짓는 것이라면, 힘은 그 지은 집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²⁸ 틸리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 69.

²⁹ Ibid, 80.

이룬다. 공동체를 예로 들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 다른 인격들이 만나게 된다. 이를 연합하여 맺어주는 것이 사랑의 기능이라면, 힘은 이 공동체의 서로 다른 속성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은 반드시 힘과 결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랑은 자선이나 용서라는 이름의 무력한 감상주의로 전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³⁰ 반대로, 힘을 상실한 사랑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힘의 순기능은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힘은 조직의 구성과 리더십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허무와 무기력, 분열 등의 비존재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그들을 모으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청년 세대의 이탈 현상은 교회가 이러한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사랑의 관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3. 정의: 사랑이 현실화되는 구체적 형식

틸리히에게 정의는 사랑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형식이다. 사랑은 재결합하게 하고, 정의는 재결합된 것을 유지시킨다.³¹ 다시 말해, 사랑이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정의는 실제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마련한다. 틸리히는 ‘창의적인 정의’라는

³⁰ 틸리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 80-81.

³¹ Ibid., 106.

표현을 사용하는 데, 이는 헤어진 것들을 다시 재결합하게 만드는 사랑의 매우 구체적인 모습이다.³² 따라서 사랑이 정의의 요구를 넘어설 수 있다거나, 사랑이 정의를 무효화한다는 주장은 톨리히에게 명백한 오류로 여겨진다.³³ 사랑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관계를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별’ 과 ‘불의’ 이다. 사랑은 때로는 감정적인 형태로 공동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정의’ 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사랑의 반대되는 표현이 아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연합이 길을 잃지 않고 의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이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책임하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랑의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 정의와 힘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사회적 힘은 본질적으로 계층적 구조를 지니며, 대표자들의 의도와 결정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정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³⁴ 힘이 자리를 잡고 기능하는 순간, 사랑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에 강조되는 것은 규칙과 효율 뿐이다. 또한 정의가 없으면, 힘은 욕심의 도구의 역할만 있을 뿐이다. 이때부터 공동체는 서로 이익이 되는 구성원으로 분리되어 조직되게 된다. 정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정의는 사랑과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 균형이 존재론적 공동체가 원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는 사랑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이며, 정의를 상실한 공동체의 모습은 불투명성과 책임 회피 그리고 세대 불균형 형태로 나타난다. 정의가 없는 곳에 사람이 설 자리는 많지 않다. 더욱이 다음 세대의 경우 외면 받기

³² 톨리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 106.

³³ Ibid., 120-121.

³⁴ Ibid., 134-135.

좋은 환경이 된다. 정의는 규칙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정의는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되는 ‘공정한 통로’가 된다. 공동체가 공정한 구조인 정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청년 세대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C. 결론: 거룩한 공동체로의 부름과 다음세대 리빌딩

틸리히는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랑·힘·정의를 본질적으로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일치는 신적 근본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한다.³⁵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분리될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악이 불가능한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는, 존재가 사랑을 선택하고, 힘을 통해 비존재를 극복하며, 정의를 통해 공동체적 질서를 형성할 때, 피조물이 자유와 분리를 통해 재결합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³⁶ 오늘날 교회는 소외된 세계 속에 존재하지만, 틸리히는 이를 “거룩한 공동체로의 부름”이라고 명명한다.³⁷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를 단편적으로 예시하는 공동체이다.³⁸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분리되는 데에 있지 않다. 세상과 분리된 것이 목적이 되면, 더 이상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소외 속에 뛰어들어 그 무게를 함께 견뎌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재결합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결합은 삶과 행동으로 직접 증명할 때 드러난다.

³⁵ 틸리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 151.

³⁶ Ibid., 156-157.

³⁷ Ibid., 161.

³⁸ Ibid., 170.

따라서 다음세대 청년 리빌딩은 단순히 사역 프로그램의 보완이나 문화적 감각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사랑·힘·정의를 분리된 채 기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동체가 존재론적 설득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 권한과 책임은 공유되지 않고, 힘은 제도와 관행 속에 은폐되며, 정의는 청년 세대의 삶의 조건과 무관한 추상적 규범으로 남아 있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며, 공동체에 속해야 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리빌딩은 곧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재구성 요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년 세대는 완전한 공동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와 갈등, 질문과 불안을 정직하게 감당하면서도 사랑·힘·정의의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를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다음세대 청년 리빌딩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성취된 현실로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향해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존재론적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Ⅲ. Y 교회의 진단과 사례

본 장에서는 Y 교회의 사례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교회 쇠퇴의 원인을 환경적·구조적·관계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톰 레이너의 연구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심층적인 신학적·목회적 진단을 시도한다. 레이너는 교회의 쇠퇴를 외형적 지표의 하락을 넘어, 기도·사역·소망·외부 지향성의 ‘동시적 붕괴’로 규정하며, 이러한 침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의 자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³⁹ 이러한 통찰은 Y 교회의 현실을 객관화하고 쇠퇴의 기저를 파악하는 결정적인 해석학적 틀을 제공한다.

A. 감소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교회가 위치한 인천의 해당 지역은 장기간 지연된 재개발로 인해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2023년 11월, 부임 당시 마주한 지역 사회는 이미 활력을 상실한 ‘정체된 도시’의 전형이었으며, 향후 5년 이내,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러한 물리적·사회적 쇠퇴는 단순히 시설의 노후화에 그치지

³⁹ 톰 레이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정성목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22), 66.

않고, 교회의 사역 전반을 위축시키며 공동체 정서에 무력감을 투영하는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툼 레이너는 교회의 쇠퇴가 물리적인 시설에서 시작되어, 사역의 생동감, 교인들의 기도생활, 외부 지향적 태도,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교인들의 소망과 꿈의 쇠퇴로 확산된다고 분석한다.⁴⁰ 이러한 진단은 외형적 변화(시설 개선)를 모색함에 있어 명확한 비전과 내적 동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경쟁적 비교의식에 함몰된, 비전 없는 변화는 결코 쇠퇴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Y 교회 역시 지역 사회 침체와 내·외부 사역의 위축이 맞물리면서, 교회의 선교적 동력이 점차 소진되는 구조적 악순환에 직면해 있었다.

2. 구조적 요인

Y 교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보수적 위계 구조가 공고히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 즉 깊은 갈등의 골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세대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 청년 세대는 사역의 주체로 서기보다는 공동체의 변방에 머무르는 주변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쇠퇴하는 교회가 세대별 기득권과 안위를 우선시하며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파편화된 공동체로 변모한다는 레이너의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⁴¹

재정적 어려움 역시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공동체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감당하는 극단적 긴축 경영은 교회의 선교적

⁴⁰ 레이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26.

⁴¹ Ibid., 47.

정체성을 위축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지상 대명령 수행보다 조직 유지를 위한 내부 지출에 매몰되는 구조적 모순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역 사회의 필요보다 교회 내부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쇠퇴하는 교회’의 징후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사명에 대한 순종적 동력은 점차 상실되었고, 사역 참여도는 저하되었으나, 정작 공동체 내부에서는 이러한 영적 침식 과정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⁴²

3. 실제 사례

Y 교회 부임 당시, 청년부 출석 인원은 단 9명에 불과하였다. 한때 40여 명이 모이던 활기찬 시절도 있었으나, 어느덧 공동체는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며, 현재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과 달리 내부 구성원들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지 못했다. 침체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하기에 모두가 침묵을 택했지만, 레이너의 지적처럼 침체의 끝은 현상 유지가 아닌 ‘자멸’ 혹은 ‘희생’ 뿐이다.⁴³

남아 있는 청년들과 면담하며 확인한 실상은 더욱 복잡했다. 그들은 공동체의 위기를 목회자와 기성 세대의 책임으로 돌리며 타자화하고 있었고, 공동체 재구성을 향한 제안에는 강한 방어 기제를 보였다. 대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경계심은 지난 활동 기간 동안 공동체의 주체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소외감이 누적되어 나타난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⁴² 레이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66.

⁴³ Ibid., 53.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관계성을 맺는 측면에서는 폐쇄적인 방어 기제를 보였으며, 자기중심적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세대적 특성이기보다, 교회의 청년들을 사역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대해진 구조적 경험의 산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레이너의 지적처럼, 교회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⁴⁴ Y 교회의 청년부는 이미 자체 예배를 스스로 포기한 채, 죽기 직전, 자생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들은 장년 예배와 통합된 구조 속에서 ‘찬양팀’이라는 제한적 역할에 안주하며, 마치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는 환자처럼 부서의 명맥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부서 모임’에 대한 요구는 본질적 변화를 위한 열망이기 보다는 관성적인 요청에 가까웠다. ‘무엇을 위한 부서 모임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스스로 성장을 포기한 공동체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의 동력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우선 부서의 당면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핵심 부원 4명(임원 2명, 예배 위원 2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발견된 공동적 특징은 청년부 활동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공동체 내 특정 대상을 향한 잠재적 원망이었다. 또한, 현재의 침체된 실상을 직시하기보다는 이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방어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예배에 매우 헌신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영적 회복을 통한 헌신이기보다는 장년 예배를 보조하기 위한 ‘기능적 봉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과도한

⁴⁴ 레이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79.

봉사로 인해 청년부 자체 사역에 투입할 에너지와 심리적 여유를 상실한 채 고갈되어 있었다.

결국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상실한 채 봉사라는 노동에 매몰된 것이 영적 가뭄의 근본 원인이었다. 이러한 고갈 상태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모임의 재개를 넘어 ‘예배 공동체’로서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마음이 갇들지 않은 채 형식만 남은 예배는 공동체의 의미를 소멸시키는 ‘최악의 예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⁵ 아래의 그림 3-1은 핵심 부원 4 명의 면담 내용을 간단히 기록했다.

사○○ (28) 직장인

1. 부서 내 역할은?
-찬양 인도자입니다.

2. 부서의 모임 분위기를 설명해줘.
-제대로 모이지 못합니다. 오후예배가 저희 모임입니다.

3.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줘.
-주중에는 평택에서 일하고 주말에 올라옴.
-교회 봉사, 청년부 참석, 워십팀 찬양리더

4. 지금 청년부의 분위기
-사람이 없어 찬양 인도자로 활동/ 부담이 큼

5. 교회에 불만이 있니?
-동생 2명은 다른 교회 출석하고 있음.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간섭과 요구에 놀림.

안○○ (27) 취준생

1. 부서 내 역할은?
워십팀 반주팀 리더입니다.

2. 부서 모임 분위기를 설명해줘.
-그저 그래요.

3.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줘.
-영어학원 일(코칭)하다가 지금 쉬는 중.
-아빠의 권유로 경찰공무원 준비를 했었음.

4. 지금 청년부의 분위기
-기본이 없음

5. 교회에 불만이 있니?
-청년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⁴⁵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14.

박○○(30) 직장인
 1. 부서 내 역할은?
 청년 회장(임원)입니다.

2. 부서 모임 분위기를 설명해줘.
 나무모임(소그룹)?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매뉴얼?

3.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줘.
 3년 공백(교회를 잠시 떠나 있었음.)/ 작년 2022년 복귀

4. 지금 청년부의 분위기
 심각한 상태/ 케어 안되는 분위기

5.교회에 불만이 있니?
 위임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있음
 돈 들어가는데 예민하심/ 잔소리가 많으심/ 위압감

김○○ (27) 취준생
 1. 부서 내 역할은?
 -청년 부회장입니다.

2. 부서 모임 분위기를 설명해줘.
 -협업, 커뮤니케이션이 안됨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임원 모임도 활성화되어야 함.

3.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줘.
 -대학원과 취업 중 고민

4. 지금 청년부의 분위기
 -기존의 아이들과 모이는 모임의 근본적인 문제

5.교회에 불만이 있니?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음.
 -떠난 사람과 더 많이 만나고 있음

그림 3-1. 핵심 부원 4명의 면담 내용

면담 과정에서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호소를 공통적으로 반복하였다:

“교회에서 의견을 말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들어요” ;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정작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사역에 치여 청년부에서 만큼은 그저 쉬고 싶을 뿐입니다” ; “여기 머물러 있어도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청년들이 겪는 소외감과 무력감이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 교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QT와 동계수련회를 회의한 기록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사역은 탈진을 가속화하며, 공동체와의 정서적 단절을 심화시킬 뿐이다. 결국 지금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헌신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하는 명확한 존재론적 비전의 제시였다.

변화의 첫 단추로, 약 두 달 정도 남은 동계수련회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수련회는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다른 활동은 포기할지언정 수련회만큼은 유지하고 싶어했다. 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에서, 청년 공동체의 재건 가능성을 보았다.

이번 동계수련회는 외부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비전과 힐링’이라는 명확한 컨셉 아래 숙소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교회 재정으로는 건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임원들에게 1박에 100만원 상당의 고가 숙소를 제안했다. 운영비를 최소화하더라도, 지친 청년들이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납득하지 못했던 임원들도 거듭된 설득과 노력 끝에 마음을 열었다. 수차례의 답사 끝에 마침내 90만원 대의 최적의 숙소를 예약할 수 있었고, 이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비전이 단순히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 그림 3-2는 동계 수련회 숙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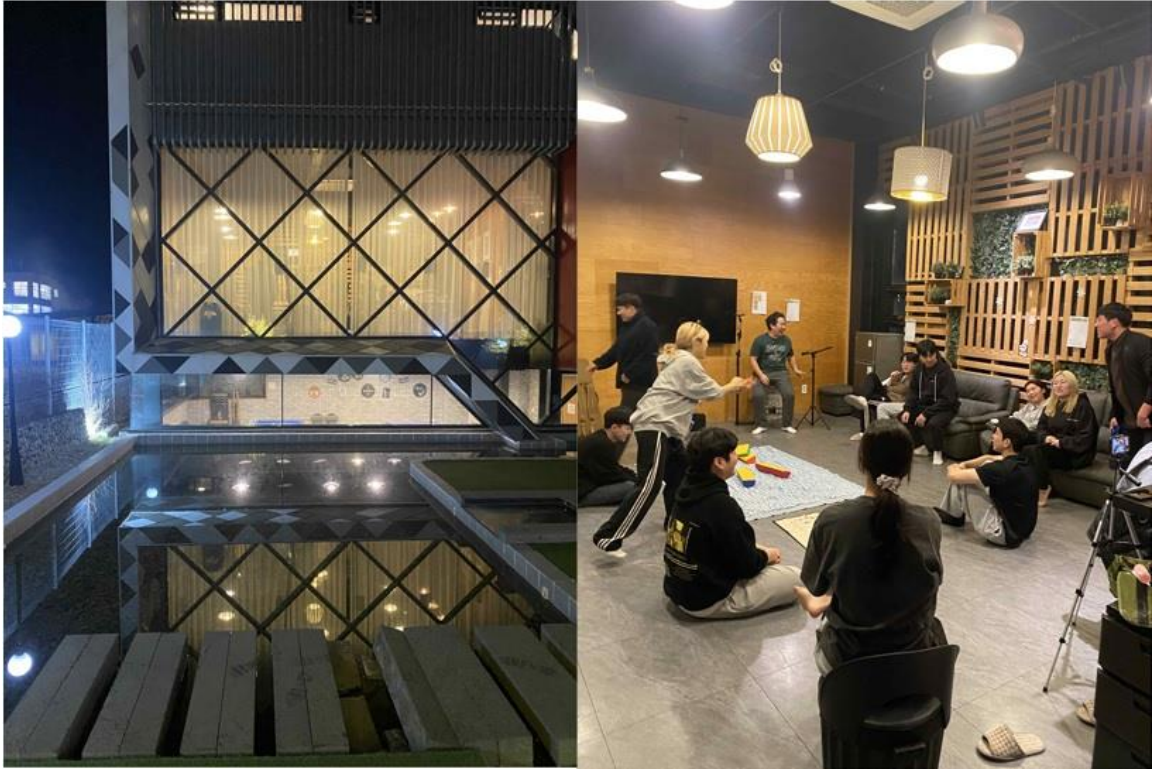


그림 3-2. 동계 수련회 숙소

예산의 절대적 부족에도 불구하고 숙소 선정에 타협하지 않았던 데에는 확고한 사역적 소신이 있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를 통해 한국 교회가 직면할 위기를 성장 정체, 재정 위기, 초대형 교회의 부도, 초고령화로 규정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28 년경 본격적으로 침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⁴⁶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교회의 지표는 그가 예고한 징후들과 상당 부분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대다수의 교회가 가파른 인구 절벽과 부채 문제라는 재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결핍의 시대’ 일수록

⁴⁶ 한연희, “한국교회 향후 10년 골든타임, 대형교회도 부도날 것”, 『데일리굿뉴스』, 2015년 3월 26일,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94>(최종접속 2026년 2월 25일)

사역의 방향은 단순한 유지를 넘어, 구성원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환대의 투자’ 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부채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공동체의 운영 철학 및 청년들의 정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속된 교회의 재정적 결핍은 청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되었다. 절약은 미덕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위축된 분위기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치와 비전의 한계를 낮게 설정하는 ‘결핍의 내면화’ 를 야기했다.

쇠퇴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조건에 함몰되지 않는 위대한 꿈이 필요하다. 단순히 현실의 조건에 맞춰 적당한 것을 목표하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쩌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일 수도 있다.⁴⁷ 현실에 안주하는 적당한 목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위대한 삶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부터 부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영적 각성이 요구된다. 부원들의 인격적인 변화와 깨어짐 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⁴⁸ 그림 3-3 은 Q.T와 동계수련회를 논의한 임원회의록의 일부다.

1.나무모임

- 1달 첫 쉐주 시작에 목사님께서서 한달 QT 내용 총 정리
- 현재 방식으로 2주 진행 해 보고 괜찮으면 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 주일마다 QT 리더가 나눔 진행
- QT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푸쉬하기

⁴⁷ 레이너,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17.

⁴⁸ Ibid, 100.

2.수련회

	2/16		2/17
8:30			<u>기상미션</u>
9:00	접수		
9:00~9:30	OT 및 여는예배 (비밀의 방설명후 파트너 숙소 전까지 보내달라고 말하기)		퇴실
10:00	이심정삼 게임 설명 및 팀배정,각팀 요리뽑기		
(10:30)	인원 선발대 출발		
11:00	조리시작		
12:00	식사 시작		정식 외식
13:00	교회 출발		
14:30~15:00	도착 방배정 및 주의사항 전달		교회도착
15:00	프로그램 시작		
	보물찾기		
	훈민정음 훑놀이		
18:00~19:30	저녁식사		
20:00~21:30	전국 은혜 자랑		
21:30~23:00	<목사님 시간>		
23:00	마무리 기도 및 야식		

회비 : 5만원 / 부분참석 회비 할인 x

그림 3-3. 임원회의록

임원 회의의 결과, 조직 내 소통 및 운영상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무모임’의 나눔 활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OT)을 도입하고, 이를 주간으로 시행함으로써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동계 수련회는 ‘교제와 회복’이라는 핵심 가치에 집중하여, 형식적 부담을 완화한 약식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회의를 통해 도출된 방침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보았으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의 명확한 한계가 드러났다. 목상의 난이도 조절은 물론, 근본적으로 “왜 목상을 해야 하는가?”라는 목적론적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동체 전반에 비전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모임과 묵상은 활력을 얻기 어려웠다. 비전이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의 삶에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수련회라는 집중적인 기회를 통해 비전의 가치를 깊이 심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는 1박 2일로 대부도 소재의 펜션에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쾌적한 환경과 몰입도 높은 일정 덕분에 장기 결석자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두 가지 핵심 비전을 선포했다. 첫째는 ‘부름받은 10명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며, 둘째는 ‘문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먼저, 청년 개개인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명백하게 의식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돕는 양육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⁴⁹ 단 한 명이라도 복음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공동체의 재건은 필연적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역의 지평을 외부로 확장하는 단계를 제시했다. 그동안 청년들은 교회의 부족한 인프라 탓에 내부 봉사 매몰된 채, 정작 신앙의 삶의 현장에 투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러한 ‘사역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가올 하계수련회는 복음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구체화하는 체험적 선교 모델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교회는 내부 유지를 위한 폐쇄적 구조를 넘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문밖으로 나가는 공동체’⁵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⁵¹

청년들의 삶의 현장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휴가 등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사역의 최전선을 경험하는 것 또한 외부 사역의 주요한 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토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동계수련회에서는 먼저, 말씀 묵상(QT)을

⁴⁹ 레이너,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62.

⁵⁰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12.

⁵¹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3)” 『국민일보』, 2012년 9월 17일

습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을 보냈다.⁵² 그림 3-4는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고안된 점검표이다.

⁵² 고든 잭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62가지 방법』 전순영 역, (서울: 규장, 2006), 22.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5원칙 점검표>

<p>●나의 결정이 성경말씀에 부합되는가?</p>	
<p>예</p>	<p>아니오</p> <p>아니라면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만둘 것.</p>
<p>●기도하면서 나의 결정이 힘을 얻는가?</p>	
<p>예</p>	<p>아니오</p> <p>아니라면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만둘 것.</p>
<p>●믿음의 친구들과 멘토들이 내 결정을 지지하는가?</p>	
<p>예</p>	<p>아니오</p> <p>아니라면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만둘 것.</p>
<p>●결정한대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인가?</p>	
<p>예</p>	<p>아니오</p> <p>아니라면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만둘 것.</p>
<p>●여기까지 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내적 평안이 있는가?</p>	
<p>예</p>	<p>아니오</p> <p>아니라면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만둘 것.</p>
<p>올바른 결정이 확률이 높다.</p>	

DATE: _____

이름: _____

그림 3-4.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5원칙 점검표

본 점검표는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식별하는 과정이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성서와 기도라는 내적 경건, 신앙 동료 및 멘토의 조언이라는 공동체적 지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적 여건과 의사 결정 이후의 심리적 평안(내적 확증) 등을 종합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영적 상태와 분별의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수련회의 마지막 순서로 청년들의 내면적 요구(needs)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 본 조사는 “현시대의 청년들이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청년의 때에 경험하고 싶은 신앙적 주제와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역적 열망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조사는 청년들의 영적 상태와 수련회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문항으로 선별·구성하였으며, 수련회 말미에 작성하게 함으로써 변화된 인식의 결과가 담기도록 유도했다. 그림 3-5는 그 설문 조사 양식이다.

2024 예청 워크샵 설문조사

1. 금번 수련회는 리트릿 (Retreat) 형태의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1.

수련회에 대해 불만족 하셨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입해주세요.

2.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만족했던 프로그램명을 기입해주세요. (모두 기입 가능)

[목사님 강의 | 이심점심 | 보물찾기 | 전국 은혜 자랑 및 기도회 | 훈민정음 웃놀이]

[

]

3. 차기 수련회는 어떤 형태의 수련회로 진행되길 희망하는지 기입해주세요.

Ex) 리트릿 | 캠프 | 국내 성지순례

[

]

4. 국내 성지순례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진행되길 희망하는지 아래 항목에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4-1. 교회 단위 vs 부서 (청년부) 단위 [교회 단위 | 부서 단위]

4-2. 희망하는 일정 [2박 3일 | 3박 4일 | 4박 5일 | 5박 6일]

4-3. 성지순례를 통해 바라는 점 [

]

4-4. 기타 의견 [

]

5. 수련회 때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

]

그림 3-5. 동계 수련회(워크샵 설문지)

본 설문 조사의 주된 목적은 수련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참여 동기를 데이터화하는 데 있다. 청년들이 수련회의

본질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며, 수집된 기대 심리 데이터는 차기 수련회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운영의 질적 혁신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청년들은 오랜 기간 고착된 전통적 사역 방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설문 의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다소 생경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수련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세부 의견에서는 ‘기존 방식의 안정성’을 고수하려는 태도와 ‘혁신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는 공동체가 정체기를 벗어나 새로운 비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과도기적 반응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는 그림 3-6 과 같다.

2024 예청 워크샵 설문조사 결과

조사인원 : 10명

1. 수련회 만족도

항목	인원
매우 불만족	0
불만족	0
보통	0
만족	3
매우 만족	6
미응답	1

1-1 수련회 불만족 이유

없음

4. 성지순례 진행 방식

4-3 성지순례를 통해 바라보는 점

- 일제시기 중요 장소 탐방
- 역사 교육 및 친목
- 의미있고 재미있는 수련회가 되길 희망
-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보고 느끼며, 더 와닿을 수 있길 희망
- 지역별 특색 있는 체험
- 다른 교회 문화 체험

4-4 기타 의견

2. 가장 만족했던 프로그램 (다중 선택 가능)

항목	인원
목사님 강의	6
이심점심	4
보물찾기	4
전국 은혜 자랑 및 기도회	7
혼민정음 옷놀이	6

3. 차기 희망하는 수련회 형태 (다중 선택 가능)

항목	인원
국내 성지순례	4
캠프	4
자체 수련회	1
리트릿	1

5. 수련회 때 하고 싶은 프로그램

- 혼민정음 옷놀이
- 보물찾기
- 해외 성지순례
- 찬양기도회
- 중보기도
- 뜨겁고 깊은 기도회

4. 성지순례 진행 방식

4-1

항목	인원
교회 단위	1(젊은 층 집사님 동원)
부서 단위	7
미응답	2

4-2

항목	인원
2박 3일	1
3박 4일	6
4박 5일	2
5박 6일	0
미응답	1

그림 3-6. 워크샵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청년들은 수련회와 MT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두 프로그램을 친교 중심의 유사한 행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구성을 선호하는 경향에서도 드러났다. 그러나 특강과 세미나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극명하게 나뉘었으며, 특히 의도적으로 추가한 ‘캠프’와 ‘국내 성지순례’ 항목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특강과 세미나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히 설문에 ‘캠프’와 ‘국내 성지순례’ 항목을 추가했다. 그들이 외부로 사역의 시선을 돌리는 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예상 외로, 그들은 캠프와 국내 성지순례에 관심을 보였다. ‘캠프’의 경우,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잘 갖춰진 집회 분위기를 느끼기 위한 것 때문으로 보이며, ‘국내 성지순례’의 경우, 휴가와 같이 특별한 곳에 가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응은 청년들의 시선을 외부 사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B. 소통의 장애

1. 트렌드

현재 청년 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 비대면 문화의 익숙함, 그리고 급변하는 유행에 민감한 세대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Y 교회 청년들에게서 나타난 세 가지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대면 문화의 고착화와 그로 인한 대면 상호작용의 미숙함이다. 공동체의 20대 초중반은 팬데믹 기간 중 학업과 사회생활을 온라인으로 수행해야 했던 이른바 ‘격리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기존 시스템에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은 단순한 사회성 결여라기보다, 대면 관계를 통한 사회 적응 훈련의

기회가 물리적으로 박탈되었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나타나는 수동적 의존성이다. 조사 결과 9명 중 단 3명만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대다수는 취업 준비생이거나 학생이었다. 면담을 통해 확인한 이들의 내면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막막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경제적·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갱거루족’ 형태의 생활 양식으로 나타났다.⁵³ 이는 성취의 경험이 단절된 세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방어적 태도로 풀이된다. 셋째는 초단기적 트렌드 소비와 다층적 경험의 추구이다. 과거의 유행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던 것과 달리, 현세대에게 트렌드는 매우 짧고 파편화된 형태로 소비된다. 이들은 하나의 가치에 오래 머물기보다 ‘최소 단위 소비’와 ‘다층적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⁵⁴ 이러한 특성은 교회 사역 역시 고정된 방식보다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년 세대의 변화된 특성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참여 방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Y 교회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참여 모델을 관성적으로 고수하고 있었다. 레이너는 많은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변화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변화를 마주할 때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⁵⁵ 이는 변화에 대한 동의와 실제 수용 사이의 괴리감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시대적 상황

⁵³ <https://namu.wiki/w/갱거루족> (2026년 1월 30일 최종접속)

⁵⁴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2026』, 267.

⁵⁵ 레이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84.

Y 교회 청년들은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단절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자, 소위 ‘N포 세대’로 불리는 사회경제적 불안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집단이다.⁵⁶ 이러한 시대적 결핍은 이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헌신보다 개인의 생존과 정서적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어적 기제를 갖게 했다.

그러나 교회는 이들의 실존적 고뇌를 공감하기보다, 이를 신앙적 열정의 결여나 정신력의 해이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교회는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외부 세계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화를 변형시키려는 어떠한 유연성도 발휘하지 않고 있다.⁵⁷

이는 교회의 전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적과 비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동체의 지체들은 교회의 방향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변화의 본질을 공유하지 못한 채 과거의 헌신 모델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태는 구성원들의 영적 소외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교회와 성도 간의 소통 단절은 회복이 쉽지 않은 단계까지 심화된다.

3. 실제 사례

Y 교회 청년 구성원들은 전통적인 제도의 소속감보다는 개별적 정서의 충족과 공동체의 직관적 분위기를 참여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정서적 경향성은 흥미 위주의 이벤트나 일시적인 모임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동체의 자치를 위한 실천적 헌신이나 지속적인 책임 이행에 있어서는

⁵⁶ https://namu.wiki/w/N포_세대 (2026년 1월 30일 최종접속)

⁵⁷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200.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구성원들 사이의 응집력이 배타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에 대해서도 다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공동체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청년 세대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존재의 근거와 사역적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구조적 결과로 해석된다. 톰 레이너가 지적했듯,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관성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묻지 않은 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데 그친다.⁵⁸ 이러한 목적의 부재는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신앙적 성장의 터전이 아닌, 에너지만 고갈되는 ‘소모적 공간’ 으로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동계 수련회 이후, 공동체 내부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임원진과 함께 공동체 리빌딩을 위한 대책 회의를 소집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청년 공동체의 근간인 소그룹 ‘나무 모임’ 의 내실화에 있었다.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룬다’ 는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소그룹은 말씀 중심의 나눔이라는 영적 토대가 부재하여 단순한 친목 도모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에 시행된 QT(Quiet Time)는 리더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과업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는 소그룹 나눔의 질적 빈곤과 공동체의 영적 하향 평준화로 직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소그룹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일 예배 후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목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주일 예배 직후 청년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목상 본문의 신학적 배경과 핵심 의미를 가이드하는 교육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둘째, ‘데일리 Q.T 챌린지’ 를 도입하였다. 목상의 연속성은 유지하기 위해 전 구성이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⁵⁸ 레이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107.

기반의 챌린지를 시행하였다. 매일의 묵상 내용을 단체 메신저에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영적 상태를 격려하고 동력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유기적 나눔 구조를 정착하였다. 주일 소그룹 시간을 한 주간 축적된 개인의 묵상과 구체적인 삶의 고백이 상호 작용하는 자리로 재정의 하였다. 이를 통해 성경(Text)과 현실의 삶(Context)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신앙 공동체의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시도는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닌, 말씀의 실천을 통해 자아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현장으로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7은 QT 계획표이다.

QT 계획

1	8일(월)	에스라 1장	
2	9일(화)	에스라 2장	
3	10일(수)	에스라 3장	
4	11일(목)	에스라 4장 1-6절	
5	12일(금)	학개 1장	
6	13일(토)	학개 2절 1-9절	
7	14일(주)	나무 모임: 스가랴 1장 1-6절	챌린지 없음
8	15일(월)	학개 2장 10-19절	
9	16일(화)	학개 2장 20-23절	
10	17일(수)	에스라 5장 1-5절	
11	18일(목)	에스라 5장 6-17절	
12	19일(금)	스가랴 1장 7-11절	
13	20일(토)	스가랴 1장 12-17절	
14	21일(주)	나무 모임: 스가랴 1장 18-21절	챌린지 없음

그림 3-7. QT 계획표

위 계획표를 통한 QT의 방법은 ‘은누리 교회’의 QT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먼저, 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체크해두고, 둘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해 둔다. 셋째, 장소와 상황들을 본문의 내용에서 찾아 정리해본다. 넷째, 핵심이 되는 요절을 찾아본다. 다섯째, 위의 자료들이 다 정리되었을 경우,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독하고 묵상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오늘 묵상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공유한다. 위의 과정을 매일 실시하고 독려하게 했다.

변화는 소그룹 운영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에서 시작되었다. 개편 당시 청년부는 전체 인원이 9명에 불과한 소규모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분할에 치중한 3개의 소그룹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의 목적이나 역동성을 고려한 전략적 분화라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관성적 운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당시 소그룹 정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적 콘텐츠의 부재이다. 말씀 묵상이라는 본질적인 영적 동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임은 신앙적 성찰이 배제된 공허한 담론이나 단순한 친목 도모 수준에 머물렀다. 둘째, 리더십의 질적 공백과 수급의 한계이다. 소규모 공동체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사역에 투입 가능한 준비된 리더를 발굴하고 세우는 데 있어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명확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는 자생적 리더십이 확립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역자 직할 소그룹’ 체제로 전환하는 배수진을 쳤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홀수 주에 전체 모임을 배치하여 공동체적 응집력을 극대화하고, 짝수

주에는 남녀로 구분된 소그룹을 목회자 부부가 직접 인도함으로써 영적 밀도를 높였다. 리더의 역할을 단순한 소그룹의 진행자가 아닌 ‘영적 동반자’로 재정의하자 반응은 즉각적이었다.⁵⁹ 특히 동성 간의 성별 분립 모임은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내면의 치유라는 고무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청년부 리빌딩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둔 두 축은 ‘사람’과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올바른 사람을 발굴하는 것과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건강한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⁶⁰ 이를 위해 공동체는 1:1 개인 양육과 1:4 리더 양육 모임을 동시에 가동하는 투 트랙(Two-track) 양육 모델을 도입하였다.

과거 청년들은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쁨은 오히려 견고하지 못한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론 중심의 교육을 통해 습득된 파편화된 지식은 구별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존재의 목적과 사역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⁶¹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전달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사역 현장과 호흡하는 양육’이며, 이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였다.

이 양육의 과정에서 본 연구자가 가장 강조한 덕목은 ‘인내’와 ‘열심’이라는 실천적 영성이었다. 리더는 본질적으로 사역자의 길을 걷는 자이며, 사역자란 자신의 최선을 드리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역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오해와 비난은 리더의 사역지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양육의 참된 가치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발현된다. 비난 앞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묵하며

⁵⁹ 조세영 외, 『청년사역 가이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127.

⁶⁰ 톰 레이너,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139.

⁶¹ Ibid., 109.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결단하는 삶,⁶² 그것이 양육을 통해 체득해야 할 실존적 영성이며, 지향점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통해 개인의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건강한 영성이 꽃을 피우게 된다.⁶³

제자화 사역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내에 공동체를 이끌어 갈 1~2 명의 핵심 리더십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점에서는 내부적 결속을 넘어 사역의 지평을 외부로 확장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다. 물론 즉각적인 외부 사역 착수는 공동체의 자생력과 교회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본 연구자는, 향후 3년 내 ‘일본 캠퍼스 선교’를 사역의 질적 정점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교회 차원에서 전례가 없는 미답지의 영역이기에, 현실적인 장벽이 여전히 높았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사역의 선교적 당위성을 구성원 및 교회와 공유하고, 공동체적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소통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했다.

동계수련회 이후, 청년부 리더십의 최우선 과제는 하계 수련회의 기획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기 행사를 넘어, 정체된 공동체의 영적·심리적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Y교회 청년부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장거리 외부 일정은 장소 선정 단계부터 치열한 논의를 수반했다.

분석 결과, 당시 청년들은 공동체적으로 익숙한 울타리 내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지리적·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사역적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추진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⁶² 양형주, 『청년 리더 사역 핵심파일』 (서울: 홍성사, 2006), 75-76.

⁶³ 에디 깁스 외, 『이머징 교회』 김도훈 옮김, (서울: 쿰란출판사, 2008), 383.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는 신념 때문이었다.⁶⁴ 청년들이 익숙한 환경을 탈피하여 더 넓은 세상을 대면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와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다.

장소 선정 과정에서 교회 내부의 보수적인 기류와 실무적인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공동체의 사역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첫 시도인 만큼 교회의 전폭적 지지, 사역적 명분의 확보, 청년 구성원들의 경험 축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비전 트립’ 형식을 채택했다.

후보지로 거론된 순천, 경주, 강원도, 제주 중, 제주도를 최종 선교지로 확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청년들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주변의 회의적인 시각을 의식하며 주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는 비전 공유 기도회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선교적 당위성을 신앙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한 집중 기도회를 상시 운영한 것이다. 둘째는 리스크 관리의 가시화이다. 재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 것이다. 셋째는 리더십의 결단이다. 임원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핵심 동력을 먼저 확보한 것이다.

재정적 부담과 회의적인 여론이라는 현실적 장벽 앞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주변의 반대를 우려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머리가 아닌 열정적 헌신으로 사는 삶’ 을 선택했다. 스윗의 표현처럼, 이미 갈망에 목말라 있던 청년들에게 포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⁶⁵ 우리는

⁶⁴ 조세영, 『청년사역 가이드』, 224

⁶⁵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57.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지표로 현재적 인원의 두 배에 달하는 ‘20 명 이상 출석’이라는 과격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장기 결석 지체들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였으나, 가능성 여부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동체의 연결성에 집중했다.⁶⁶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련회 직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성과를 취하게 되었다. 첫째는 재정의 자급화이다. 작성한 예산을 초과 확보하며 사역의 물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는 인적 자원의 확장이다. 목표 수치를 상회하는 24 명의 청년이 최종 참여를 확정지은 것이다. 셋째는 영적 응집력 강화이다. 준비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 흩어졌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비전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질적 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림 3-8 은 비전 트립 일정이다.

⁶⁶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48.

비전트립 타임테이블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6:00	김포공항이동및 제주공항 도착		
7:00			
8:00			
	차량 대여		
9:00	애월방면순교지 탐방	기상및 집합	기상및 집합
10:00		모슬포지역 순교지 코스 /점심식사	서귀포지역 순교지 탐방 /점심식사
11:00			기념품샵
12:00			공항이동
13:00			점심식사
14:00		9.81 파크	복귀
15:00			
16:00	카페		
17:00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20:00			
21:00	단체모임	야시장	
22:00		숙소복귀	
23:00		취침	취침

그림 3-8. 비전 트립 타임테이블

‘비전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주제 아래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이론적 학습과 현장 체험을 결합한 통합적 영성 형성을 지향한다. 참가자들은 제주 지역 선교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역사적 지식을 함양하고,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해

텍스트로 접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실존적·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개인의 신앙 고백과 연결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성찰적 탐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C. 세대 간의 갈등

Y 교회 내부에는 책임 전가와 상호 비난의 기류가 팽배해 있었다. 이는 인프라가 취약한 소형 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사역의 모든 과정이 소수의 인적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참여율의 저조는 특정 개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는 비효율을 낳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는 자성하기보다 ‘세대 간의 책임 전가’라는 손쉬운 탈출구를 선택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헌신 부족을, 청년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역 환경을 원망하며 서로를 비난했다. 레이너가 지적했듯, 소생하는 교회의 핵심은 리더와 교인이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의 과업’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있다.⁶⁷ 반면,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교회를 쇠퇴 상태로 몰아넣는 위험한 징후이다.⁶⁸

조사 결과, 청년들의 사역 참여도는 예상외로 매우 높았다. 재직 9명 중 8명이 각 부서와 예배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년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통념이 근거 없는 편견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편견이 공동체 내에 고착될 경우 소통은 단절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⁶⁷ 톰 레이너,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정성목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22), 52, 145.

⁶⁸ 레이너,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126.

없다. 따라서 교회가 칭찬해야 할 비복음적 관행과 수호해야 할 본질적 가치를 엄격히 분별하는 과정이 시급하다.⁶⁹

대다수 청년은 이미 이중, 삼중의 사역을 감당하며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다. 사역은 ‘기쁨의 헌신’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조는 이를 ‘과중한 노동’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안 없는 인력 투입은 결국 지체들의 영적·육체적 탈진(Burn-out)을 초래할 뿐이다.⁷⁰ Y 교회는 이러한 기능적 사역 동원의 악순환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청년들의 영적 에너지가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

세대 갈등은 단순한 세대 간 의견 차이가 아니다. 이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 사명과 존재 목적을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구조적 병리 현상’이다. 공동체가 변화보다 전통의 수호를, 헌신보다 자신의 안위를, 그리고 사명보다 개인의 취향을 우선순위에 둘 때, 교회는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자처하게 된다.⁷¹ Y 교회에서 목격된 세대 갈등 또한 이러한 목회적 방향성의 상실과 신학적 정체성의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⁶⁹ 에디 깁스, 『이머징 교회』, 144.

⁷⁰ 조세영, 『청년사역 가이드』, 173.

⁷¹ 레이너,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26.

IV. 청년 세대 리빌딩 전략

앞선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Y 교회의 쇠퇴는 환경적·구조적·관계적 요인이 중첩된 결과이며, 그 핵심에는 교회 존재의 목적과 방향 상실이라는 신학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Y 교회의 리빌딩 전략은 단기적 프로그램 개선이나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론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구성이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성경적 교회 이해, 폴 틸리히의 존재론적 신학, 그리고 톰 레이너의 교회 쇠퇴·소생 연구를 통합하여 Y 교회의 리빌딩 전략을 제시한다.

A. 예배 중심 리빌딩: 하나님의 임재 회복

1. 예배 공동체 리빌딩

성경적 리빌딩의 본질적 기초는 하나님의 임재 회복으로 귀결된다. 다윗의 언약궤 봉헌 사건은 공동체의 외형적 안정이나 제도적 완성보다 신적 임재를 향한 ‘영적 재정렬’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⁷² 이러한 예배적 원형은 초대 교회의 형성 과정에서도 나타나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코이노니아, 성찬, 기도를 핵심 가치로 삼아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⁷³

⁷² 한성천, 『원어성경대전 023』, 446-454.

⁷³ 한성천, 『원어성경대전 112』, 235-240.

Y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리빌딩은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성경이 제시하는 재건의 원형을 오늘날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예배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시급하다. 현대의 많은 예배가 개인의 정서적 위안을 얻는 ‘심리적 치유’ 나 종교적 콘텐츠를 향유하는 ‘소비적 행위’ 에 머물러 있다면, Y 교회의 리빌딩 과정에서는 예배를 인간 존재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돌려놓는 ‘존재론적 사건’ 으로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이론적 토대는 앞서 살펴본 존재론적 사랑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타인 및 세계와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소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고립된 상태를 극복하고 흠어진 존재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리된 것들을 다시 결합시키려는 강력한 존재론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바로 이 사랑의 동력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장(場)’ 이 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 세대를 향한 예배의 재구성은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청년 예배가 단순히 그들의 취향에 맞춘 음악이나 세련된 형식을 도입하는 ‘세대 맞춤형 서비스’ 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경쟁 사회 속에서 파편화된 청년들의 삶, 그들이 품고 있는 실존적인 질문과 회의, 그리고 남모를 상처와 소외감까지도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있는 ‘존재론적 재결합의 장’ 이 되어야 한다.

결국 Y 교회의 리빌딩이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예배를 통해 구성원들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재결합의 에너지가 예배라는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 현실화될 때, 청년들은 비로소 소외를 극복하고 공동체라는

든든한 공간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회복이야말로 Y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재건이자, 미래 세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선교적 응답이 될 것이다.

2. 실제 사례

청년 사역의 4대 핵심 가치인 예배, 양육, 전도, 기도는⁷⁴ 상호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작동한다. 이 중에서도 ‘예배’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가장 견고한 기초이자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다. 예배가 신앙의 본질 위에 바로 설 때 비로소 다른 가치들이 동력을 얻고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⁷⁵ 그러나 Y 교회 청년 공동체의 경우, 예배의 재구성이 일시적인 프로그램의 개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에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낼 내적 동기, 즉 ‘영적 사모함과 실존적 절박함’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배 본질에 대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논의가 가시화되기까지는 9개월의 인내가 필요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정체된 기간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 청년 리더들이 영적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잠복기’이자 ‘성숙기’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가 세운 원칙은 청년들의 주체성 확립이었다. 청년 세대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변화에 대해 강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느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특성을 보인다.⁷⁶ 따라서 사역의 리빌딩은

⁷⁴ 양형주, 『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서울: 홍성사, 2005), 19.

⁷⁵ Ibid., 21.

⁷⁶ 이장로, 『교회경영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126.

단순히 과업을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갈망하는 영역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심리적·구조적 장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공동체 리빌딩을 위한 단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기존의 형식적이었던 주일 모임을 대체할 ‘토요 모임’을 기획하였다. 양육의 성과로 인해 정기적인 모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각종 봉사와 사역으로 인한 청년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실무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주일 일정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고려하여 토요일을 대안적 접점으로 확정했으나, 도입 초기에는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일부 구성원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본질로 돌아가 ‘청년 세대의 영적 회생’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며 구성원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토요 모임’은 예배 회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복잡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년들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은 갈망을 느끼고 있음을 직시할 때, 이러한 본질 중심적 가치의 제시는 공동체 회복의 진정한 기점이 되었다.⁷⁷

토요 모임이 정착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내부적으로 “이 모임을 공식적인 예배로 전환하자”는 자생적인 요구가 분출되었다. 과거 소규모 예배를 시도하다 중단했던 공동체적 트라우마가 잔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관건이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예배의 가치는 공동체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⁷⁸

⁷⁷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2026』, 375.

⁷⁸ 조세영, 『청년사역 가이드』, 51.

Y 교회 청년 예배의 리빌딩의 핵심은 ‘예배자 중심’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를 위해 청년 리더들이 1 주차를 제외한 2, 3, 4 주차에 예배 기획 전반에 참여하는 ‘테마별 예배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2 주차 테마는 소통 중심의 예배였다. 한 주간의 신앙적 고민을 취합하여 토크쇼 형태로 풀어내는 ‘질문이 있는 예배’ 를 드린 것이다. 3 주차는 공간의 확장을 테마로 한 예배였다. 월 1 회 야외 예배를 기획, 자연과 일상의 공간을 예배 처소로 확장하는 시도한 것이다. 4 주차의 테마는 말씀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 예배였다. 매일 큐티(QT) 본문 중 하나를 선정하여 청년들의 삶과 맞닿은 테마로 기획한 것이다.

이처럼 매주 다른 컨셉을 준비하는 과정은 물리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지만,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거친 리더들의 자발적인 헌신 덕분에 안정적인 운영과 역동적인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림 4-1는 예배 계획서다.

재미와 의미가 있는 예배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웃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는 없을까?"를 고민.

RE: WORSHIPER

-다시 시작하는 예배자

-총 4 주 매주 토요일 6시-7시(약 1시간 *오프닝은 5시 30분부터)

	기존 형태의 예배 모임	
1주차	Welcome Party! ▶ 찬양 ▶ 찬양 짧은 묵상 ▶ TALK ▶ 소그룹 & 기도 ▶ 미션 & 찬양 ▶ 축도와 파송	
2주차	TALK concert	
	Welcome Party! ▶ 찬양 ▶ TALK SHOW ▶ 소그룹 & 나눔	
3주차	예배자, 세상 속으로(오늘은 어디로 갈까?)	또는 ART Worship
4주차	임원들이 기획하는 '지금 우리 세대는?'	
	Welcome Party! ▶ 미니드라마 ▶ 소그룹 나눔 ▶ 마무리 미션 & 찬양 ▶ 축도와 파송	

-교육용 자료(이전과 동일한 방식)

-Encounter 중심의 교육 과정

<1주차> Standard Worship(비전 예배)

No.	시간	순서	설명	담당	time taken
00	17:30 - 18:00	Welcome Party! (사전모임)	가벼운 음식 + 아이스브레이킹	000 ()	30m
01	18:00 - 18:10	찬 양	한 주 동안 신청곡 받기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해보기)	진행자	10m
02	18:10 - 18:13	찬양 짧은 묵상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가사" 가사 공유와 이유(간증형식)	진행자	3m
03	18:13 - 18:18	TALK	주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	담당 목사	5m
04	18:18 - 18:43	소그룹 & 기도	진행자, 서기 지정 후 진행. 나눔 중심이 아닌, 각자의 기도 제목 공유, 증보기도로 마무리	진행자	25m
05	18:43 - 18:58	미션 & 찬양	마무리 적용과 결단 찬양	담당 목사	15m
06	18:58 - 18:59	축도와 파송		담당 목사	1m
TOTAL					1h 29m

(*시간이 길게 걸리는 순서는 5분 전 통보/ 마무리/ 복귀 시간까지 포함) *기도 카드 있으면 좋을 것 같음

<2주차> Talk Show Worship(공유예배)

No.	시간	순서	설명	담당	time taken
00	17:30 - 18:00	Welcome Party! (사전모임)	가벼운 음식 + 아이스브레이킹	000 ()	30m
01	18:00 - 18:10	찬 양	한 주 동안 신청곡 받기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해보기)	진행자	10m
02	18:10 - 18:30	TALK SHOW	말씀 중심/ 진행자/ 패널 (*자료에 대한 질문/ 질문지)	진행자	20m
03	18:30 - 18:31	기 도	기도 후, 자유롭게 토론장으로	담당 목사	1m
04	18:31 - 18:59	소그룹 & 기도	진행자, 서기 지정 후 진행. 나눔 중심이 아닌, 각자의 기도 제목 공유, 증보기도로 마무리	진행자	28m
TOTAL					1h 29m(+a)

(*시간이 길게 걸리는 순서는 5분 전 통보/ 마무리/ 복귀 시간까지 포함) *기도 카드 있으면 좋을 것 같음

<3주차> Culture Day!

목 적	WORSHIPER, GO! OUTSIDE!(오늘은 어디로 갈까?) 또는 ART Worship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적용되어야 한다.(사역이 가능한가?) -교회생활은 따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재미있게 놀 수 있다.(분위기 전환) -세상에서도 배워서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청년 모임을 윤곽하게 할 아이디어/ 공연, 문화 등)
준비사항	모임 시작 시간은 1주일 전 통보/ 장소물색: 매 달 초에 방문할 장소를 논의한다.
목 표	듣는 예배자를 넘어 행동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통한 결과를 얻는 것.

<4주차> Creative Worship(부제: MY STORY)

No.	시간	순서	설명	담당	time taken
00	17:30 - 18:00	Welcome Party! (사전모임)	가벼운 음식 + 아이스브레이킹	000 ()	30m
01	18:00 - 18:10	찬 양	한 주 동안 신청곡 받기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해보기)	진행자	10m
02	18:10 - 18:15	미니드라마	한 주간 매일 성경 본문 발췌 주제 설정: "내가 바라세인이라면..."	진행자	5m
03	18:15 - 18:17	오늘의 주제	"요즘 청년들의 고민, 이슈"	진행자	2m
04	18:17 - 18:47	소그룹 & 기도	진행자, 서기 지정 후 진행. 나눔 중심이 아닌, 각자의 기도 제목 공유, 중보기도로 마무리	진행자	30m
05	18:47 - 18:58	미션 & 찬양	마무리 적용과 결단 찬양	담당 목사	11m
06	18:58 - 18:59	축도와 파송		담당 목사	1m
				TOTAL	1h 29m

(*소그룹 자료는 미리 준비) *기도 카드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그림 4-1. 청년 예배 계획서

새로운 청년 예배를 기획한 것은 청년 예배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질의 형식의 혁신을 병행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 주차는 수용성을 높인 예배 체제를 도입하고, 2-4 주차는 청년 세대 특유의 창의적 요소를 반영한 실험적 예배 형태를 구현하는 데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이는 예배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청년 공동체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려는 전략적 시도인 것이다.

예배의 본질적 가치와 영적 기쁨을 실존적으로 체험한 청년들은 사역 초기에 나타났던 수동적 불평과 만성적 피로감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구체적인 실천적 헌신으로 가시화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배 공간을 매주 설정된 테마에 맞춰 재구성하고, 예배 전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물리적·시간적 소모가 큰 과업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과정이 단순한 ‘노동’이나 ‘번거로운 의무’로 인식되었다면, 예배의 역동성이 회복된 이후에는 이를 공동체적 즐거움과 신앙 고백의 연장선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임원진을 필두로 확산된 이러한 자발적 참여는 Y 교회 청년 공동체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영적 기류의 변화를 상징한다.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 고양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내적 질서를 재편하는 문화적 변혁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리빌딩은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공유할 때 완성된다.⁷⁹

첫째는 윤리적 문화이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신앙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진지한 담론을 형성한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문화이다.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원하는 ‘환대’의 일상화인 것이다. 셋째는 영적 문화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겸손’의 미덕 체득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기틀은 예배가 단순히 주일의 한 행사를 넘어, 청년들의 일상과 관계를 규정하는 실질적인 영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신학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 교제의 파트너’로서 가치 있게 창조되었으며, 피조물이

⁷⁹ 조세영, 『청년사역 가이드』, 202.

창조주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존재 목적이 실현된다. 스윗은 인간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존재론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⁸⁰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영적 충만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환경이나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영적 자유함’의 실재를 경험하게 된다.

Y 교회 청년부에서 확인된 변화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한 이들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줄 수 없는 근원적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선교적이고 유기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 주었다.

그림 4-2 은 토요 모임 참여 사진이다.



⁸⁰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83.



그림 4-2. 토요일 모임

B. 존재의 공간 리빌딩: 힘의 회복과 공동체 구조 재편

1. 섬김 공동체 리빌딩

일반적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힘’이라는 단어는 타인을 억압하는 지배력이나 물리적인 강제력, 혹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폭력과 혼동되곤 한다. 그러나 앞서 톨리히가 제시한 힘의 개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누군가 위에

균립하는 수단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근원적인 에너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의 힘은 무너지고 사라지려는 위협, 즉 ‘비존재’의 저항을 이겨내고 스스로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며 서 있는 가능성 그 자체이다. 어떤 대상이 소멸하지 않고 자기다운 상태를 유지하며 생동하고 있다면, 그 대상은 이미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은 조직이나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흔히 우리는 조직의 힘이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 효율적인 시스템, 혹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조직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공동체의 본질적인 힘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외형적인 틀이 아무리 견고하고 리더의 지휘가 일목요연하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과 ‘함께 존재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조직은 내부적인 균열이나 외부의 충격이라는 비존재의 위협 앞에서 쉽게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체가 발휘하는 실질적인 힘은 단순히 관리 기법이나 통제 전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된 ‘근원적인 공간’에서 싹을 틔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영토나 사무실과 같은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며, 상실의 위협에 함께 맞설 수 있는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터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논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얼마나 강력한 규율로 사람들을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단단하게 구축하는지에 달려 있다. 비존재의 위협을 극복하고

존재를 지속하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 공동체가 받을 딴고 서 있는 유무형의 공간이 지닌 깊이와 넓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과거, Y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가 더 이상 그들의 실존적 물음과 불안을 수용하는 공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장소’로 경험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리빌딩의 핵심 전략은 청년들에게 기능적 역할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수용되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레이너가 강조한 ‘외부 지향적 전환’의 원리와 궤를 같이한다. 쇠퇴하는 공동체는 내부 유지에 매몰되지만, 생명력을 회복하는 공동체는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향해 시선을 돌리기 때문이다.⁸¹

이에 따라 Y 교회는 청년부를 조직 유지의 수단으로 소모하는 대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의 핵심 주체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외형적 이동을 넘어 구조적 변혁을 동반해야 한다. 세대 간의 위계적 질서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톨리히가 역설한 ‘사회적 힘의 계층 구조를 정의의 원리로 조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⁸²

2. 실제 사례

⁸¹ 레이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58, 127-128.

⁸² 톨리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 134-135.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유기적 지체 연합을 이루기에 최적화된 장소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⁸³ 과거 문화를 선도하며 매력을 발산하던 교회는 이제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점차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박제된 랜드마크’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보유한 본질적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교회는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사람 중심의 대면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은 화려한 공간이나 일시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인 ‘낮아짐’과 ‘온전함’에 있다. 비록 현재 교회 안에서 가장 희미해진 가치일지라도,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핵심 덕목이자 세상과 구별되는 최후의 보루이다.

리빌딩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물리적인 사역을 강요하기보다, 존재의 수용과 자발적 동기 부여에 집중했다. 과도한 사역은 공동체의 연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에, 사역의 외형보다 개인의 영적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긴 소통의 시간을 통해 봉사와 섬김의 본질적 의미를 정립해 나간 결과, 놀라운 양적·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출석 인원 17명 중 14명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일 근무자 3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 인원 전원이 헌신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단순한 참여율의 증가를 넘어, 과거에 비해 ‘사역 후 심리적 소진(Burn-out)’ 현상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년간 청년 개개인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유익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한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앙 상태 점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림 4-3은 테스트 설문지이다.

⁸³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88.

신앙과 교회의 건강 진단 설문지

이 설문은 현재의 자신의 신앙 상태와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설문을 통해 우리 부서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질문에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답 중 귀하의 견해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비교적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설문지 내용이 현재의 사정과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란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세계 여러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틀입니다. 난해하더라도 가장 직설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에서 소그룹은 3-20명의 소그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공부, 생 모임, 기도 모임, 부서 모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설문지에서 예배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해당됩니다.

이 설문지에서 교회란 당신이 출석하는 지교회를 말합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을 취급하여 귀하의 답변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설문지 어느 곳에도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아주시시오.

이 설문지 질문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의 정의들은 작성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보고 귀하의 의견이 어떤지를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NCD와 슈바르츠 질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설문지 질문은

1.성별 남자 여자

2.나이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그 이상

3.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년 모르겠다

4.당신이 드리는 헌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해당되는 항목 모두 체크)

주정 십일조 감사 선교 건축 일천번제 (기타:)

5.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업무상의 관계는 제외)

없음 1-2명 3-5명 6-10명 11-20명 21-30명 30명 이상

6.당신의 현재 신앙 상태를 어떻게 보니까?

(정확하게 체크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건강하지 않음				건강함			아주 건강함		

7.현재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솔직하게)

1	2	3	4	5	6	7	8	9	10
건강하지 않음				건강함			아주 건강함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대체적으로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①	②	③	④	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나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된다.
8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경험한다.
9	①	②	③	④	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내가 가진 은사나 재능에 맞다.
10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예배 설교가 나의 개인 적인 삶에 도움을 준다.
11	①	②	③	④	⑤	내가 속한 소그룹(부서, 성경공부 등)은 나의 삶과 사역에 도움을 준다.
12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13	①	②	③	④	⑤	나는 교회는 기쁨으로 사역하는 교회다.
14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가진 생각을 교회 멤버들과 쉽게 나눈다.
15	①	②	③	④	⑤	나는 전체 교회 사역 중에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6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맡은 사역을 하는데 협력해줄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17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협력을 잘한다.
18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19	①	②	③	④	⑤	나의 사역에 한계를 느낄 때,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20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적절한 전도를 할 줄 안다.
21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22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23	①	②	③	④	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 진다.
24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교회 설교를 즐거이 듣게 듣는다.
25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가 나의 사역을 돕고 있다고 느낀다.
26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교회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안다.
27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28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잘 설명해 준다.
29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많은 즐거움과 웃음이 있다.
30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친구, 직장동료, 친척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한다.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대체적으로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1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은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32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33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도움이 있어야 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34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자신의 은사(혹은) 재능을 발견하도록 꾸준히 돕는다.
35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동참할 기쁨(사회, 기도, 찬양, 묵상 등)을 준다.
36	①	②	③	④	⑤	나는 교회의 친구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37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교육이나 훈련을 자주 받는다.
38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것들을 주변 성도들과 종종 함께 나눈다.
39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믿음이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한다.
40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서로 비난하거나 반정거리지 않는다.
41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쉽게 친구를 사귄다.
42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
43	①	②	③	④	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44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쉽게 말할 수 있다.
45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예배에 왜 참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
46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 섬김 및 헌신 등에서 열정적이다.
47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찬양(혹은 성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48	①	②	③	④	⑤	내가 속한 소그룹은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동화된다.
49	①	②	③	④	⑤	나는 기도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룹에 속해 있다.
50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교회 각각 다른 부서들끼리 어떻게 동역하는지 분명히 안다.
51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은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잘 받는다.
52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영적 상태를 교회의 여러 사람과 나눈다.
53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데 관심이 많다.
54	①	②	③	④	⑤	나는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역을 즐겁게 감당한다.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대체적으로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5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56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집과 같이 편안하게 느끼는 소그룹에 속해 있다.
57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나 재능을 사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58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잘 안다.
59	①	②	③	④	⑤	나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60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데 있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61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삶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다.
62	①	②	③	④	⑤	성경은 매일 나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안내자이다.
63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나의 영적 모델이다.
64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가지려고 한다.
65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소그룹의 리더들은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다.
66	①	②	③	④	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는다.
67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교회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안다.
68	①	②	③	④	⑤	만일 내가 교인들과 의견의 충돌이 있으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들과 만난다.
69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성경을 즐겨 읽으면서 은혜를 체험한다.
70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 예배는 불신자들에게 매력·감동과 감화를 준다.
71	①	②	③	④	⑤	불신자들이 교회 행사에 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열린 마음과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다.
72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실질적으로 돕는다.
73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언제나 우리 교회의 예배가 기다려진다.
74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늘 마음의 준비를 한다.
75	①	②	③	④	⑤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어 있다.

위 자료는 교회와 부서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림 4-3. 신앙 건강 설문지

위 설문지는 청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내실화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써, 세계적으로 공인된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의 핵심 지표를 차용하였다. 특히 슈바르츠(Schwarz)의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춰 부분 수정·보완하여 적용함으로써, 주관적 체감에 의존하던 공동체의 건강성을 객관적 통계 수치로 데이터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공동체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아직 외부 지향적인 사역 역량은 보완이 필요한 단계이나, 과거 대비 소통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고 견고한 공동체성이 확립되었다는 점은 리빌딩의 핵심적인 성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내부적 결속과 상호 신뢰의 구축은 향후 대외적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지난 1년의 변화는 공동체 소생을 위한 유의미한 질적 도약이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청년부의 건강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통, 결속, 만족, 전도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문항 번호 28, 48, 54, 60)을 중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슈바르츠의 지표 중 우리 공동체의 현안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 요소들을 데이터화한 것이다. 그림 4-4는 설문지에 대한 부분적인 결과치이다.

주요 건강성 지표 현황 (M)



* 5점 리커트 척도 적용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

기술통계 상세 데이터 요약

핵심 분석 지표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가 수준
교회 소통 및 설명 (Q28)	3.29	1.63	매우 높음
사역의 즐거움 (Q54)	3.08	1.53	높음
소그룹 새가족 동화 (Q48)	2.29	1.74	취약
창의적 전도 방식 (Q60)	2.17	1.79	매우 취약

그림 4-4. 신앙 건강 결과(일부)

청년들이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공동체적 소통과 기도의 과정에 있다. 깊은 나눔과 중보의 시간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 사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실존적 결단을 이끌어냈다. 이는 가치관의 변화가

관념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행위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발견된다는 원리를 입증한다.⁸⁴

C. 정의 중심 리빌딩: 사랑이 지속되는 공동체 질서

1. 사랑의 공동체 리빌딩

앞서 살펴본 톨리히의 존재론적 관점을 확장해 보면, 정의(Justice)는 단순히 법적인 규칙이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선다. 흔히 정의를 차갑고 이성적인 규범으로, 사랑을 따뜻하고 감성적인 결합으로 보아 두 개념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곤 하지만, 톨리히의 시각에서 정의는 ‘사랑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어 나타나는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의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가치가 복잡한 현실 세계 속에서 왜곡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외형적 틀이자 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는 사랑과 힘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는 결정적인 균형추 역할을 수행한다. 힘이 존재를 유지하려는 동력이고 사랑이 흩어진 존재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는 의지라면, 정의는 그 결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파괴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율한다. 만약 사랑에 정의가 결합된다면 그 사랑은 무책임한 감상주의로 흐르기 쉽고, 힘에 정의가 없다면 그 힘은 앞서 지적한 비존재의 위협에 저항하기는커녕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정의는 사랑이 현실적인 관계망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사랑의 보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⁸⁴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90.

더 나아가 탈리히는 정의가 상실되었을 때 공동체가 직면하게 될 위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경고한다.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불투명성과 책임 회피라는 고질적인 질병을 앓게 된다.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담보하는 정의의 원칙이 사라지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불투명해지고 누구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정의의 결핍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자원 배분이나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세대 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공동체 내에서 사랑이 수행하는 역할이 분열된 존재들을 재결합시키는 ‘시작’에 있다면, 정의의 역할은 그렇게 재결합된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지속’에 있다. 정의라는 형식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사회란, 단순히 법과 제도가 완비된 곳이 아니라 그 제도들이 사랑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터전이 되어주는 사회를 의미한다.

Y 교회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청년들이 경험한 실존적 상처의 근원은 단순히 ‘사랑의 결핍’이라기보다 ‘정의의 부재’에 기인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발언권 불균형, 일방적인 책임 전가, 그리고 세대 간에 적용되는 이중 잣대는 공동체 내에서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무너뜨렸다. 정의라는 공정한 질서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되는 사랑은 공허한 수사에 그쳤으며, 결국 공동체의 영적 결속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성경적 리빌딩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 ‘구조적 재설계’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레이너가 분석한

소생하는 교회의 특징과 같이, 특정 세대나 리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공동체 전체가 사역을 나누는 ‘유기적 책임 구조’가 요구된다.⁸⁵ 또한 프로그램, 전통, 시설과 같은 외형적 요소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본질을 담아내는 도구적 수단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⁸⁶ 이와 같은 정의로운 공동체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사랑은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실존적 실체가 된다.

2. 실제 사례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원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지구’라는 행성을 걸작이자 예술품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훼손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다.⁸⁷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다(고린도전서 2:2).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고백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셨다.⁸⁸ 이것을 가르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묵상하고 체험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 가능성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더 이상 그 가능성에 기대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비움과 십자가로의 시선 고정 은 구원의 시작이자 ‘교회됨’의 진정한

⁸⁵ 레이너,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52, 145.

⁸⁶ Ibid., 176-178.

⁸⁷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78.

⁸⁸ 레이너,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93.

회복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을 추종하고, 세속적 가치를 변혁하며, 고도의 공동체적 윤리를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⁸⁹

⁸⁹ 에디 깁스, 『이머징 교회』, 69.

V. 다음 세대 청년 리빌딩의 신학적 결론과 목회적 함의

본 연구는 차세대 청년 리빌딩을 단순한 기능적 세대 교체의 차원을 넘어, 교회의 존재론적 본질의 회복 과정으로 재정의하였다. 성경적 교회론, 틸리히의 존재론적 신학, 그리고 레이너의 실천적 교회 진단은 각기 다른 학문적 토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 쇠퇴의 본질을 사명의 상실, 외부와의 단절, 그리고 존재 의미의 붕괴라는 공통된 궤적에서 파악하고 있다.

A. 신학적 결론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장차 도래할 그 나라를 단편적으로 예시하는 공동체이다.⁹⁰ 따라서 교회의 존립 목적이나 성공 여부를 가시적인 성과와 수치적인 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오류이다. 다음세대 청년 리빌딩의 본질은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사랑·힘·정의는 상호 불가분한 존재론적 단일 구조를 형성한다. 사랑 없는 정의는 냉혹한 규율이 되고, 힘 없는 사랑은 무력한 감상주의가 되며, 정의 없는 사랑은 특권적 자기합리화로 변질된다.⁹¹ 다음세대는 공동체 내에서 목격되는

⁹⁰ 틸리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 170.

⁹¹ Ibid, 120-121.

이러한 존재론적 균열과 가치의 파편화를 그 어떤 세대보다 예민하게 감지하며, 이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셋째, 하나님이 악과 소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신 목적은, 인간이 자유 안에서 소외를 극복하는 재결합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⁹²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의 질문과 이탈은 단순한 사역적 실패의 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공동체가 상실했던 사랑·힘·정의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신학적 징후’로 이해될 수 있다.

B. 목회적 함의

첫째,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은 단지 ‘유지해야 할 부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상태를 투영하는 ‘신학적 거울’이다. 청년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현재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현상은 단순히 한 부서의 위축이 아니라, 그 교회가 이미 존재의 방향과 사명의 동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이다.

둘째, 목회자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관리자나 청년들의 기호를 맞추는 ‘소비자 만족형 리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론적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⁹³ 목회의 본질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각자의 실존적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영적 지평을 열어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⁹² 톨리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 156-157.

⁹³ 레이너,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60-61.

셋째, 교회 리빌딩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 그 자체에 있지 않는다. 그러나 본질을 회복하려는 단호한 변화의 의지 없이는 어떤 교회도 다시 소생할 수 없다.⁹⁴ 다음 세대 청년 리빌딩은 단순히 사역의 형식을 바꾸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교회가 ‘생명을 향한 역동적인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주라는 이름의 익숙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결단의 문제이다.

C. 연구의 한계와 적용 가능성

본 연구는 특정 단일 교회를 중심으로 수행된 사례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모든 교회 공동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Y 교회가 지닌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특수성, 즉 재정 규모, 지역적 입지, 특유의 리더십 구조 등은 타 교회들과 차별화되는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는 유사한 환경에 놓인 소형 교회의 리빌딩 전략을 위한 심층적인 기초 자료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리빌딩 모델은 모든 교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 공동체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신학적·실천적 상황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자가 해당 사역을 직접 이끄는 목회적 위치에 있었기에,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실천신학적 관점의 주관적 통찰이 개입되었을 가능성 또한 열어 두어야 한다. 이는 사례 연구가 갖는 현장성의 특징이며, 향후 보다 다양한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을 기능적 대안이 아닌 존재론적 층위에서 재조명하고, 신학적 담론과 목회 현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⁹⁴ 레이너,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182.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가 위기에 처한 현대 교회의 청년 사역을 회복시키는 의미 있는 학문적 기초이자 실천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새로운 사역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번역 서적

틸리히, 폴. 『사랑 힘 그리고 정의』. 성신형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7.

레이너, 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정성목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22.

----- .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정성목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22.

----- .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최예자 역. 서울: 목상하는 사람들, 2022.

스윗, 레너드.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김영래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02.

잭슨 고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62 가지 방법』. 전순영 역. 서울: 규장, 2006.

깁슨 에디 외. 『이머징 교회』. 김도훈 역. 서울: 콤팩출판사, 2008.

한국어 서적

한성천 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023: 사무엘하 제 1-10 장』. 서울: 제자원, 2004.

----- . 『원어성경대전 112: 사도행전 1-7 장』. 서울: 제자원, 2005.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6』. 서울: 미래의 창, 2025.

양형주. 『청년 리더 사역 핵심파일』. 서울: 홍성사, 2006.

----- . 『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 서울: 홍성사, 2005.

이장로. 『교회경영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조세영 외. 『청년사역 가이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논문, 잡지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3)” 『국민일보』 2012년 9월 17일.

웹사이트

<https://namu.wiki/w/캥거루족> (최종접속 2026년 2월 24일).

<https://namu.wiki/w/N포세대> (최종접속 2026년 1월 30일).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hinho Choi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February 17, 1977

Parent`s Names: Choi Ki-hak and Jo Kye-hwa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Seoul Urban Science Technical High School 196 Jongam-ro, Seo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22, 1995
Collegiat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50 Daehak-ro, Daesowon-myeo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BS.	Feb. 21, 2002
Graduate: 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 41 Hannam-ro 88beon-gil,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M.Div.	Feb. 16, 2012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M in min.	Aug. 2, 201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hinho Choi

Name typed

March 15, 2025

date